

# Market Issue

## 삼성전자 하락 코멘트

### 삼성전자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삼성전자는 7일 발표한 2분기 잠정 실적에서 연결 기준으로 매출 171조원, 영업이익 89.4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영업이익이 1810% 폭등한 수치로, 3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 기록을 갱신한 것이다. 이러한 실적 호조는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 그리고 기술 경쟁력 회복이 주요했기 때문이다.

특히 2분기 영업이익은 전 분기대비 56% 이상 증가하며 시장의 기대를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성과급 총당금 약 20조 원을 포함할 경우, 이익 규모는 약 110조 원으로 늘어나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했을 것이다. 삼성전자의 어닝서프라이즈는 최근 제기된 AI 데이터센터 투자 둔화 우려를 일부 해소하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한 AI 컴퓨팅 투자 사이클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 주가 조정은 기술적 요인

이 시각 현재, 삼성전자는 7% 넘게 하락하고 있다. 주가 조정의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 '차익실현과' '리밸런싱' 지속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외국인은 지난 6월 19일 이후 13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의 시총 대비 외국인 지분율은 47% 수준까지 하락하며 약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 5월 27일 출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국내 수급 환경의 메기 역할을 하고 있다. 레버리지 ETF의 특성상 기초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일정 배수로 추종하기 위해 매일 장 마감 직전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리밸런싱 과정을 거친다. 레버리지 ETF의 리밸런싱 수요는 인위적인 '숏 감마' 노출을 생성하여 가격 변동에 따른 강제적인 매매 흐름을 강화시킨다. 삼성전자 역시 금일 하락세가 이러한 수급 피드백 루프를 강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 중장기 전망은 여전히 밝음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은 엔비디아를 넘어 전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AI 인프라 확대의 병목으로 '메모리 부족 현상'은 2027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가격 결정력 우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하반기 매출 및 이익 기대치 상향 조정에 주목할만하다. 현재 시장에 형성된 3분기와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각각 110, 120조 원이다.

당사는 삼성전자의 '[플스택 내재화의 우위\(김영건, 2026년 6월 15일\)](#)'에 주목하고 있다. DRAM, NAND, HBM 등 메모리 전반을 자체적으로 설계·제조·패키징까지 수행해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고, 기술 차별화를 통해 메모리 사이클 변동성에도 원가 효율성을 확보해 안정적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삼성전자 을(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해 유동성공급자(LP)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